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영화 '#살아있다'가 사회상을 반영한 생존 스릴러의 강점으로 감명병 확산 여파 속에서 극장가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주연 유아인은 그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개봉 첫 주 100만 돌파...이유 있는 돌풍

'#살아있다', 살아있네!

- 1 코로나19에도 '불 영화'는 본다
- 2 유튜브·썸비 등 1020 취향저격
- 3 사회상 반영·'홍행 카드' 유아인

유아인·박신혜 주연 '#살아있다'가 제목 그대로 한국 영화의 존재감을 선언했다. 개봉 첫 주말 100만명을 동원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개월째 이어진 극장가 침체를 극복하는 물론 관객 회복의 신호탄까지 쏘아올리고 있다.

썸비가 덮쳐온 도심 아파트에 고립된 주인공의 사투를 그리며 24일 개봉한 '#살아있다'(제작 영화사 집)가 28일 오후 5시 누적 100만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넘어섰다. 개봉 첫 주말 100만명 동원은 설 연휴인 1월22일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과 '히트맨' 이후 무려 5개월만의 성과다.

개봉 전 예매율이 60%대까지 치솟으면서 '#살아있다'의 흥행이 예상됐지만, 초반 성적은 그 예측마저 뛰어넘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영관 좌석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관객 동원의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보고 싶은 영화, 볼 만한 영화는 극장에서 찾아본다는 사실을 증명한 작품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유튜브·드론·썸비...1020 취향저격

'#살아있다'는 소위 제목 덕을 제대로 봤다. SNS에 친숙한 1020세대를 겨냥해 제목에 해시태그를 붙여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주인공 준우(유아인)의 직업 역시 젊은 층에 친숙한 유튜브로 설정했다. 생존을 위해 유튜브, 드론, SNS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20대의 모습이 또래 취향에 그대로 적중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물오른 한교원, 벼락같은 '원샷 원킬'

손준호 패스 결승골 연결·3경기 연속골...1위 전북, 2위 울산 꺾고 승점 4점차 벌려



'우리가 이긴다!' 전북 한교원(7번)이 28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울산과 원정경기 전반 44분 선제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전북은 라이벌 빅뱅에서 2-0으로 이겨 최근 5연승으로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울산 | 김민현 기자 marineboy@donga.com

한교원, 실세없이 중앙침투 울산 위협
울산 김기희 퇴장...승부의 추 기울어
쿠니모토 후반 추가시간 썰기골 작렬



K리그 통산 8회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 현대가 올 시즌 K리그1(1부) 우승 경쟁의 초반 판도를 좌우할 라이벌 빅뱅에서 활짝 웃었다.

전북은 28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울산 현대를 2-0으로 제압했다. 5연승의 전북은 8승1패(승점 24)로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킨 반면 2위 울산은 시즌 첫 패배를 안았다(6승2무1패·승점 20)를 안았다. 전북은 또 최근 울산에 4경기연속무패(2승2무)를 달리며 통산전적에서도 36승26무36패로 동률을 맞췄다.

전북 승리의 일등공신은 좌우 날개로 포진한 한교원과 쿠니모토였다. 전반 44분 울산 오른쪽 외곽에서 얻은 프리킥을 지체 없이 손준호가 연결한 볼을

받은 한교원은 오른발 킥으로 조현우가 지킨 울산의 골문을 뚫었다. 최근 3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4호 득점포. 이에 뒤질 새라 쿠니모토는 울산의 반격이 계속되던 후반 추가시간 개인기로 직접 상대 문전으로 침투해 절묘한 슈트로 시즌 1호 골을 신고했다.

둘의 움직임은 90분 내내 눈부셨다. "승리를 갈망하며 뛰었다"던 한교원은 오른쪽 윙어의 역할을 100% 수행했을 뿐 아니라 과감한 중앙침투로 울산 수비를 실세 없이 흔들었다. 왼쪽 날개 쿠니모토도 수준 높은 개인기와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갈채를 받았다. 조세 모라이스 전북 감독은 "(한교원은) 늘 헌신하는 선수다. 개인훈련도 많다. 상승세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칭찬했다.

승점 6점짜리 승부담겨 경기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선발출전을 앞두고 있던 전북 미드필더 신진호가 위밍업 도중 가슴 답답증을 호소해 이근호로 바뀌는 돌발변수가 생겼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맥박과 호흡 모두 정상수치였으나, 만에 하나를 위해 시내 병원으로 후송됐다.

초반부터 치열했다. 울산과 전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이어갔다. 슈트 파울

을 아끼지 않은 경기가 과열되면서 경고도 빠르게 나왔다. 전반 13분 손준호(전북), 3분 뒤 이근호가 옐로카드를 받았다.

결정적 변수는 전반 26분 터졌다. 전북 김보경의 발목을 향해 무모한 태클을 범한 중앙수비수 김기희가 비디오판독(VAR) 결과 퇴장을 당해 울산이 수적열세에 몰렸다. 원정팀도 출혈이 컸다. 김보경이 더는 뺄 수 없다는 사인을 내자 이근(전반 28분) 교체카드(무릴로)를 써야 했다.

그래도 훨씬 불리한 쪽은 홈팀이었다. 울산은 불투이스를 투입해 수비 공백을 채웠지만, 한 번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긴 어려웠다. 결국 전반 막판 한교원에게 실점하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김도훈 울산 감독은 후반 들어 비운 존슨을 투입해 짧게나마 주니오와 투 톱을 구축했고, 장신 불투이스를 전진 배치해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홍정호가 중심에 선 전북 수비와 압박은 너무도 탄탄했다. 오히려 6분 주어진 후반 추가시간, 왼 측면과 전방을 중흥으로 누빈 쿠니모토에게 썰기골을 얻어맞고 쓰러린 완패를 당했다.

▶프로축구 관련기사 8면

울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KBO리그 경기결과 ▶28일 잠실 NC 5 : 0 두산 고척 KIA 0 : 1 키움 인천 LG 4 : 0 SK 대전 KT 8 : 4 한화 사직 삼성 3 : 7 롯데

CJ CHEILJEDANG

Returnup 리턴업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리턴업 전속모델 성유리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나의 건강 리턴업 리턴업 Returnup

- 미네랄 2종 (아연/구리)
-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 비타민 4종 (A, C, E, 베타카로틴)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